

기획특집 Special Edition

위대한 기록유산, 『승정원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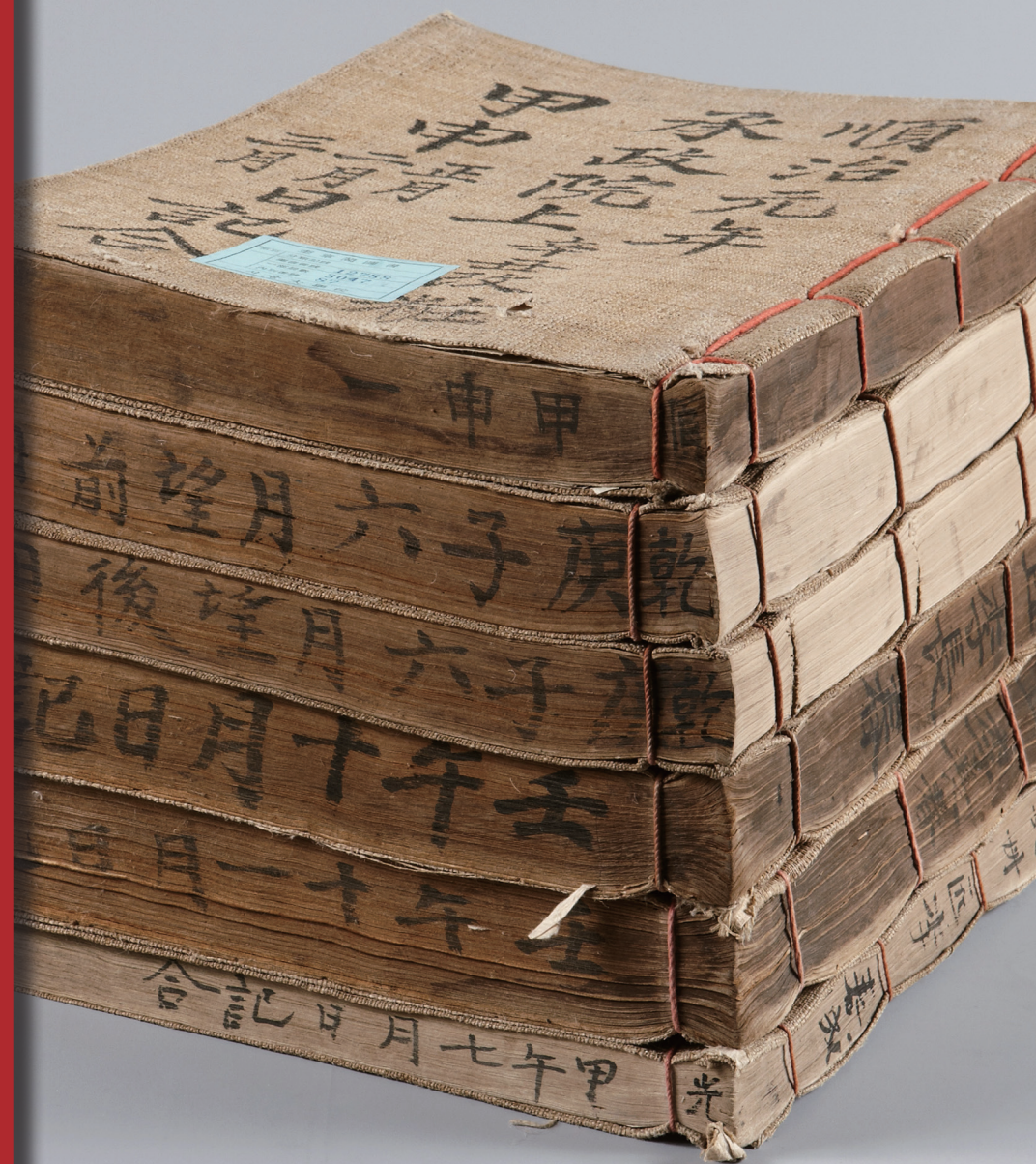
-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
신병주_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 승정원의 조직과 기능
심재권_나사렛대학교 비서행정학과 교수
- 『승정원일기』 속의 왕실질병 기록
차웅석_경희대학교 한의과학대 교수

奎章閣圖書	
部別	分類記號
	12788
	圖書番號
	3047
	一部冊數
	1767

Special Edition I

『승정원일기』의 사료적 가치

글. 신병주 (건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승정원일기』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으면서 비서실의 기능을 했던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취급한 문서와 사건을 일자별로 기록한 책이다. 원래 건국 초부터 작성되었으나 현재는 1623년(인조 1)부터 1910년(융희 4)까지 288년간의 기록 3,243책이 남아 있다. 초서로 쓰인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탈초(脫草)한 영인본을 간행하였다. 원본의 책 크기는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세로 40cm, 가로 28cm 정도이다. 『승정원일기』로 제목이 된 한 책의 장수는 70~200장 정도로 편차가 나타나며, 3,045책의 총 장수는 382,487장으로 평균하면 125장 정도가 한 책의 분량이 된다. 288년에 걸친 역사기록물이라는 점과 3,243책 총 문자량 2억 4,000여 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서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이러한 자료적 가치와 우수성이 확인되어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 9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는 과정에서 국제자문위원회의 많은 질의를 받았다. 『조선왕조실록』이 이미 기록유산으로 등록된 마당에 『승정원일기』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세계인들은 궁금해했다. 아마도 제대로 된 국가 기록물을 갖추지 못한 다른 나라들은 국가의 공식 기록을 여러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제작되는 것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2011년에는 『일성록(日省錄)』까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어 조선왕실의 연대기 기록은 3종이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만큼 조선시대 기록문화가 탁월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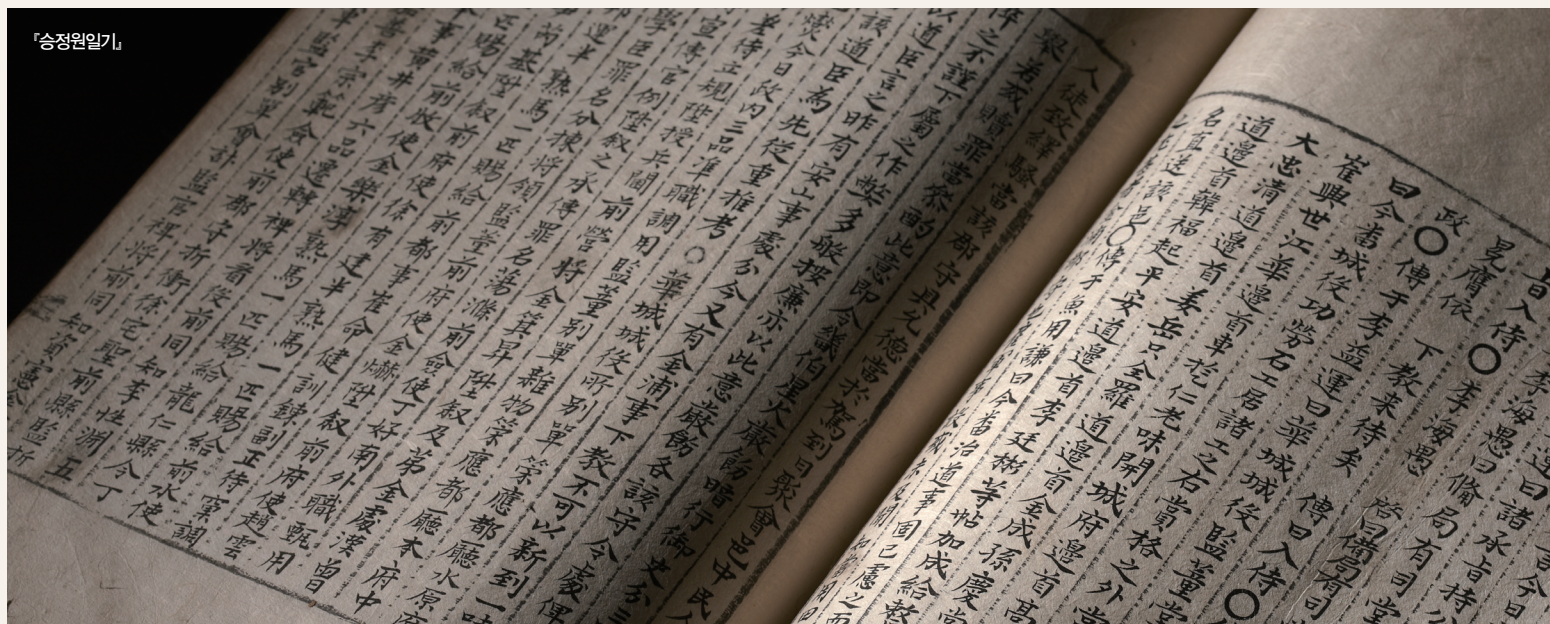
국보와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승정원일기』 3,243책 중에는 아래의 도표와 같이 『승정원일기(承宣院日記)』,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등 다른 제목의 책들이 포함된 것도 눈에 띈다. 이것은 비서실의 기능을 하던 승정원의 명칭이 바뀐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들 책들은 『승정원일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 책들을 포함한 전체의 책명을 『승정원일기』라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승정원일기』는 실록 편찬에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왕의 최측근 기관인 비서실에서 작성함으로써 국왕의 행동반경과 동선, 신하들과 주고받은 대화에 나타나는 정치의 미세한 부분까지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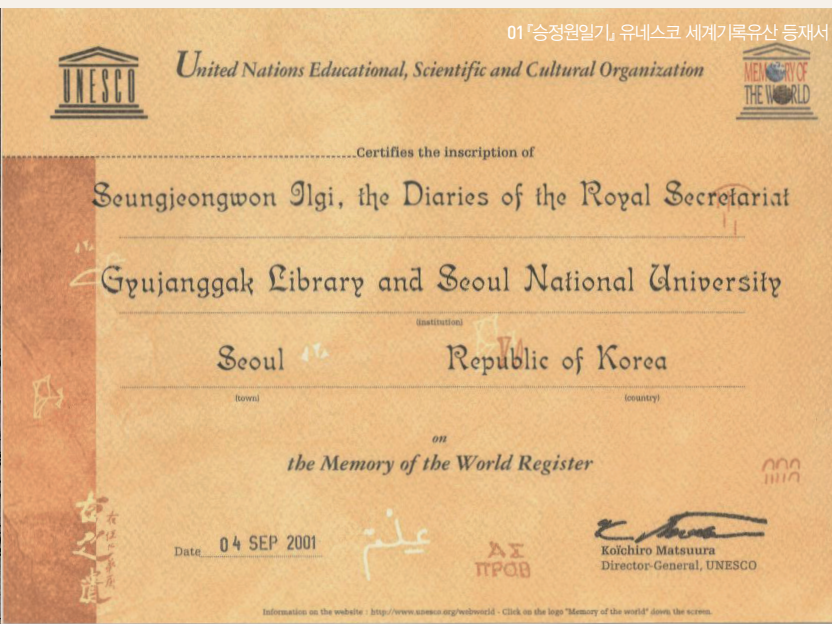
『승정원일기』는 현재 원본 1부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으나, 초서(草書)로 기록되어 해독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1961년부터 초서로 쓰인 원본을 탈초(脫草)하여 그 원문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는 탈초한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탈초와 정보화사업은 초서로 된 원문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 『승정원일기』의 보급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한문으로 쓰인 방대한 원문은 여전히 소수의 전공 분야 연구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문화추진회(현재의 한국고전번역원)에서 1994년부터 고종 대의 『승정원일기』를 시작으로 국역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인조 시대와 영조 시대의 『승정원일기』의 국역이 일부 이루어졌다. 이 성과물은 한국고전번역원의 홈페이지에서 고전종합DB를 통해 제공되어 『승정원일기』의 연구 활성화와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승정원일기』의 완역이 모두 이루어질 시기는 예상할 수가 없다. 지금의 추세라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어쨌든 『승정원일기』의 국역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조선왕실, 나아가 조선시대사 연구에 있어서 비약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승정원일기』의 국보 지정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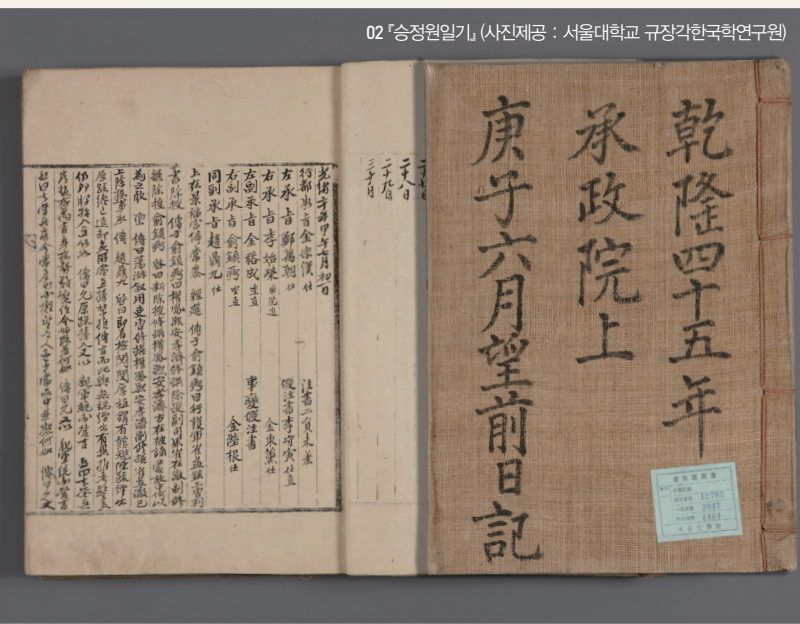
지정일	지정번호	책명	책수
1999년 4월 9일	국보 제303호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3,045책
		승선원일기(承宣院日記)	4책
		궁내부일기(宮內府日記)	5책
		전비서감일기(前秘書監日記)	8책
		비서원일기(秘書院日記)	115책
		후비서감일기(後秘書監日記)	33책
		규장각일기(奎章閣日記)	33책
	계	3,243책	



『승정원일기』



01 『승정원일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서



02 『승정원일기』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승정원일기』의 자료적 가치

『승정원일기』는 세계 최대의 역사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의 미세한 부분까지 정리된 방대한 기록, 빠짐없이 기록된 날씨, 1870년대 이후 대외관계에 관한 기록 등은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보다 돋보이게 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는 실록 편찬에도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특히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는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의 직책에 있었던 승정원에서 이루어진 기록인 만큼 왕의 기분, 숨결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기록에 담았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매일 기록된 일기이므로 일기의 전량이 남아있다면 6,4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된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기록된 『승정원일기』는 전쟁과 정변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후에도 영조 때와 고종 때 등 몇차례에 걸쳐 화재를 만나 『승정원일기』의 일부 책들이 소실되었지만 그때마다 『춘방일기(春坊日記)』와 『조보(朝報)』 등을 널리 수집하여 빠진 부분을 채워 나갔다. 『승정원일기』는 매일 썼기 때문에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일 년의 정치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 또한 국왕의 동정을 비롯하여 정치의 주요 현안이 되는 자로나 중앙이나 지방에서 올린 상소문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수록하여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그리고 왕실 주변의 정황이 중심이 되는 만큼 국왕의 건강이나 심리상태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고, 국왕의 정무를 보던 장소와 시간대별로 국왕의 이동 상황 등을 꼭 기록하여 국왕의 동선(動線)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이 완료된 후 지방의 사고(史庫)에 보관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을 할 수 없었던 데 비하여, 『승정원일기』는 실록보다 내용이 훨씬 상세하고 주요한 전례나 국방, 외교상의 현안이 있을 때 전대의 『승정원일기』를 참고하기도 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역사의 기록물이자 현재 정치의

참고자료로 항상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서로 보완관계를 지니면서 무엇보다 인조 대 이후 조선 후기의 역사를 총괄하는데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비록 『조선왕조실록』 보다는 연대가 광범위하지 않지만 유사한 성격의 국가 공식 연대기 기록인 『일성록』 보다는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훨씬 광범하여 인조에서 영조 대에 이르는 시기의 기록은 특히 『승정원일기』의 자료가 크게 참고가 된다.

『승정원일기』의 가치를 보다 돋보이게 하는 요소는 매일의 날씨를 기록한 점이다. 날씨는 청(晴: 맑음), 음(陰: 흐림), 우(雨: 비), 설(雪: 눈) 등 매일 날씨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전청우후설(午前晴午後雪)' 등 하루 중 일기의 변화까지도 기록하였다. 비가 내린 경우 측우기로 수위를 측정할 결과까지 꼼꼼히 적었다. 『승정원일기』의 날씨 관련 기록은 전통시대 기후연구에 큰 도움을 준다.

『승정원일기』는 비서실에서 기록한 만큼 왕이 주체가 된 행사에 대한 기록이 특히 자세하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먼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 분량을 비교해 보자. 『속중실록』 속중 26년 7월 25일 기록에는 좌의정 이세백(李世白)이 평

안도 지역에서 문신 출신 수령을 원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고한 내용이 나온다. 『속중실록』에는 약 10행(1행은 30자)에 걸쳐 나오는데, 『승정원일기』의 같은 날 기록에 의하면 이 내용은 4면(1면은 30행, 1행은 27자) 21행에 걸쳐 있다. 『속중실록』에서는 핵심 내용만을 기술한 반면, 『승정원일기』에는 왕과 이세백이 대화하는 내용을 모조리 기록하고 있다. 국왕의 의견이나 지시인 '상왈(上曰)'과, 이세백의 말인 '이세백왈(李世白曰)'이 계속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당시 현장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는 왕과 신하들의 독대 기록이 특히 자세하며, 왕의 표정하나 감정하나까지도 상세히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나타난다. 또한 역대 국왕들 스스로가 자신의 병세에 대해 신하들에게 이야기하고 약방이나 의원들에게 자문을 구한 사실과 국왕의 기분과 질병 등 왕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다. 국왕의 언행, 기분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철저한 기록 정신, 이것이야말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의 기록물 『승정원일기』를 탄생하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영조실록』 영조 36년 3월 16일에는 1760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한 청계천 준설공사를 완료하고 『준천사실』이라는 책자를 완성한 내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날짜의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청계천 공사에 임하는 심정과 구체적인 공사 과정 등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승정원일기』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손에 의해 집필되어 정사(正史)로서 정통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시기 대체 자료로서의 의미도 크다. 1876년 개항 이후에도 조선왕실 비서실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이곳에서 쓴 기록이라는 점에서 『승정원일기』는 『일성록』과 함께 『고종실록』이나 『순종실록』이 지니는 한계성을 보완해 주는 1차 사료가 되는 것이다. 물론 1894년 이후 승정원의 명칭이 바뀌면서 간행된 『승선원일기』, 『궁내부일기』, 『비서감일기』 등 198책의 책은 일제에 의한 내정간섭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제작되어 엄밀한 사료 비판을 요하지만 황제의 결재를 요하는 주요 정치적 사건과 궁중의 비화 등이 생생히 정리되어 있어서 근대사를 연구하는 기본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 그리고 이 시기 『승정원일기』의 기록에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나타났던 서구 열강과의 외교관계, 외세의 침략에 대해 대응하는 조선왕실의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어서 한말 대외관계사 연구에도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작성

『승정원일기』는 승정원에서 작성하였다. 승정원이란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 오늘날 청와대 비서실에 해당한다. 승정원에서는 국왕의 지시사항이나 명령을 정부 각 기관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국왕에게 보고하는 각종 문서나 신하들의 건의사항을 왕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정원(政院) 또는 후원(喉院)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후’는 목구멍을 뜻하는 한자어로 승정원이 국왕의 말을 바로 대변하는 요직임을 암시한다. 『승정원일기』의 편찬은 ‘승사(承史)’라 칭하는 승지와 주서가 공동으로 담당하였으며, 최종 기록은 주서들에게 맡겨졌다. 승지는 무관도 임명될 수 있었으나 주서는 반드시 학문과 문장이 검증된 문관을 뽑아서 임명하

였다. 주서는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여 승정원을 거친 문서나 실록 편찬에 참고했던 국내외 각종 기록들을 두루 검토·정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의 편찬을 위하여 예문관에 봉교(奉敎) 2명, 대교(大敎) 2명, 검열(檢閱) 4명 등 8명의 한림(翰林)을 두고 이들을 전임 사관의 역할을 하게 한 것처럼 『승정원일기』의 편찬을 위하여 전임 사관의 역할을 맡은 주서를 두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서는 승정원의 사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서가 사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임시로 주서를 뽑았는데 이를 ‘가주서(假注書)’라 하였다.

주서가 기록한 매일의 일기는 다시 한 달 분을 정리하여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는 절차를 거쳤는데, 왕에게 올리기 전 일기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시켰다. 인조에서 경종 대까지의 초기의 기록은 2달 또는 3달의 기록이 한 책으로 편집된 예도 볼 수 있지만, 영조 대 이후에는 한 달 분량의 일기가 1책으로 편집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분량에 따라 한 달에 2책씩 작성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개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망전(望前)’과 ‘망후(望後)’로 분류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승정원의 벼슬아치들의 실명(實名)을 꼭 적었다. 앞부분에는 6명의 승지를 비롯하여 주서, 가주서, 사변가주서 등의 실명이 나온다. 매일 매일 기록 작성자의 실명을 꼭 적었다. 병이나 사고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상황까지 ‘병(病)’, ‘재외(在外)’, ‘식가(式暇)’ 등의 표현으로 기록하여 기록의 주체를 분명히 하였다. 기록의 실명화는 이들에게 책임감과 함께 국가의 공식 기록에 자신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이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도 아울러 부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제작이 완료된 『승정원일기』는 승정원 일대에 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서는 승정원 내에 보관된 모든 서적, 문서를 관리하였다. 승정원 내에 보관된 문서와 도서의 종류, 수량, 보관 장소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곳에서 『승정원일기』를 작성하고 국왕의 빈번한 서적 하사, 승지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도서는 물론 국가의 기밀문서, 인사, 전고(典故) 관계 문서 등 그 종류와 수량이 엄청났다고 추측되며, 그 보관처는 승정원에 인근한 장소였다.

1820년대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을 담은 『동궐도』에는 인정한 동쪽 대청(臺廳)과 문서고(文書庫) 사이에 ‘은대(銀臺)’라는 명칭으로 승정원의 건물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일대에 『승정원일기』가 보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승정원일기』는 조선왕조가 건국된 후 매일 기록된 일기이므로 일기의 전량이 남아있다면 6,4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 될 것이다. 조선 전기에 정리된 『승정원일기』는 임진왜란이나 1624년의 이괄의 난과 같은 병화와 정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고, 인조 대 이후에 편집된 책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후에도 1744년(영조 20)과 1888년(고종 25) 등 몇 차례의 화재로 『승정원일기』의 일부 책들이 없어 졌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자 시강원(侍講院)의 기록인 『춘방일기(春坊日記)』와 『조보(朝報)』를 비롯하여, 주서를 지낸 사람의 기록인 『당후일기(堂後日記)』와 지방에까지 널리 수집한 각종 기록들을 정리, 종합하여 빠진 부분을 채워 나갔다. 조선 후기 『승정원일기』의 보수 작업에 가장 힘을 기울인 국왕은 영조이다. 영조는 1735년(영조 11) 승지 김시행이 임진년 이후의 『승정원일기』를 수보할 것을 청하자 이를 옹기 여겼으며, 1744년(영조 20) 승정원에서 화재가 일어나 1592년(선조 25)부터 1722년(경종 1)까지 130년 1,796권의 일기가 모두 소실되자, 1746년(영조 22) 5월 일기청의 설치를 명하고 곧바로 『승정원일기』의 개수 작업에 들어가 다음해에 이 시기 『승정원일기』 548권의 개수를 완료하였다. 원래의 기록에 비해 내용이 1/3로 줄어들었지만 기사마다 출처를 명시하고 권말에 기사를 쓴 사람과 교정에 참여한 사람의 실명을 기록하여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에 참여하도록 했다.

영조 대에 보였던 이러한 노력들은 고종 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고종 대에는 1888년의 화재로 361권의 일기가 소실되자 이듬해에 일기청을 설치하고 개수 작업에 착수하여 1890년에 개수를 완료하였다. 이후에도 관리의 부주의로 인해 『승정원일기』는 몇 차례 유실되었지만 그때그때 마다 관련 기록을 근거로 하여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여 완결된 상태로 만들어 나갔다. 이처럼 시대를 초월하여 개수 작업이 끊임없이 진행되었기에 1623년(인조 1)부터 1894년(고종 31) 승정원이 폐지될 때까지

지 총 3,045책의 『승정원일기』가 결본 없이 남게 되었고, 이를 계승한 『비서원일기』 등을 포함하면 조선시대 비서실의 일기 총 3,243책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다. 『승정원일기』와 같은 명품을 남긴 조선왕조의 뛰어난 기록문화의 전통은, 우리들에게 과거라는 미지의 공간을 보다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들여다보게 한다. 『승정원일기』를 ‘현재의 거울’로 삼아 21세기 문화대국을 지향하는 몫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남아 있다. 

66

『승정원일기』와 같은 명품을 남긴
조선왕조의 뛰어난 기록문화의
전통은, 우리들에게
과거라는 미지의 공간을
보다 정확하고 생동감 있게
들여다보게 한다.

99

필자 소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였다(석사, 박사). 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사의 대중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 KBS의 『역사추리』, 『TV조선왕조실록』, 『역사스페셜』, 『한국사 傳』 등의 자문을 맡았다. 현재 외규장각도서 자문포럼위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전문위원, 조선시대사학회 총무이사로 활동 중이며, KBS1 라디오에서 ‘신병주 교수의 역사 이야기’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조선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례』,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이처럼 평전』, 『조선을 움직인 사건들』, 『조선평전』, 『조선후기를 움직인 사건들』 등이 있다.